

“장애인 시설 ‘코로나’ 대책 필요”

장애인 일할 곳이 없다

국민권익위, 취업알선 요청 45%로 1위

전장연,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서 제출

“대남병원 사태, 격리 장애인 생명권 침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과 복지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피진정 대상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승율 청도군수, 청도 대남병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장연은 인권위가 격리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라고 각 기관에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대남병원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다”며 “(그의 죽음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소외된 곳을 아는 것처럼 찌르고 있다”며 “(격리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26일 11시30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리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인권위의 긴급 구제 명령을 촉구했다.

현재 있는 정신병동에서 나오거나 최소한 1인 1실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폐쇄병동 안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행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대남병원처럼 6

인 1실 그대로 유지한 채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은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한데 묶어 격리해 관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장애인들의 취업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다 알선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문제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 준비부터 근로환경까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확대와 취업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13.4%) 순이었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구직 어려움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307건)를 차지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다는 내용(41.5%)이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 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0%로 뒤를 이었다.

장애인 직업훈련 민원은 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개선 요구(37.0%),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임금·업무차별 등 직장 내 애로사항(39.8%)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직업훈련 종사자나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채용 시 차별을 배제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장흥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계자 소통 나서

“지역 내 어르신 다양한 복지욕구·문제해결에 최선”



장흥군은 지난 24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장, 생활지원사 대표를 20여 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2020년도부터 새롭게 바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흥군 노인맞춤돌봄서비

스 생활지원사 142명은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매주 방문해 안부확인하고 주거환경개선, 일상생활지원 연계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위지훈 기자

영암군,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추진

영암군이 노후 된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철거 285동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62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되어 왔으나 이번년도부터 추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

무소에서 받으며, 영암군 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을 소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이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처리 한 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한 동당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한 동당 최대 172만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